

“20년 후에는 치매 엄마역 해보고 싶어요”

지난해 14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

4부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강한 울림 남기고 다시 미국 행

14년 만에 돌아온 원미경(57·사진)이 안방극장에 강한 울림을 남기고 다시 떠났다.

그는 지난 10여년 살아온 미국 버지니아주 집에서 전화를 받았다. tvN 4부작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로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고는 출연히 미국으로 떠난 원미경을 최근 인터뷰했다.

노희경 작가의 동명 작품을 21년 만에 리메이크 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은 두 자녀와 의사 남편, 치매 시어머니를 둔 중년의 여성 인희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선고받고 사랑하는 이들과 이별하는 과정을 조명한 드라마다.

“인희랑 제가 같은 나이여서 그런지 연기하면서 인희와 같이 시름시름 앓아갔어요. 막 열심히 달려든 것도 아닌데 살이 너무 빠져서 다들 ‘어디 아픈 거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했을 정도예요. 연기하는 내내 나라면 어땠을까, 나도 인희와 같은 상황이 되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촬영 시작부터 끝까지 인희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다. ‘뻘한 신파’가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노희경 작가의 대본은 간결하면서도 깊었고, 원미경이 해석한 인희는 시청자의 명치 끝을 걸린 채 모두의 엄마가 돼 진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리허설하기가 겁날 정도로 배우도 스태프도 많이 울었어요. 리허설하면서 울음이 터질까 봐 배우들이 서로 눈을 제대로 못 맞췄죠. 감정이 너무 오버되면 안되니까 그걸 조절하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죽음을 다룬 드라마는 많은데 이 작품은 왜 그리 공감할까요?”

배역이 임자를 만난 덕이다. 낙천적이고 착하고 푸근한 인희와 원미경은 하나가 됐다. 특히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다정하게 보살피는 인희의 모습이 전혀 어색하게 보이지 않았다.

“김영옥 선생님과 호흡 맞출 때 저는 시어머니가 왜 그런지 너무 귀여웠어요. 선생님이 ‘넌 치매 걸린 시엄마가 뭐가 예쁘냐?’며 의아해하셨는데, 저는 진짜 시어머니가 예뻐 보였고 귀여웠어요. 그런 감정과 연기는 우리나라지 않으면 못하잖아요. 가짜로는 못해요. 인희로서는 피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는 거라고 봐요. 미움보다는 연민이 많았던 거죠.”



하지만 치매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이야기다. “저도 두려웠어요. 저도 20년 후엔 저런 모습이 될지 모르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미래는 모르니 누구든지 생각해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이들과 죽음에 대해 굉장히 많이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어요.”

이 작품은 원미경에게 운명처럼 다가왔다. 그는 지난 10월 두달 일정으로 잠시 귀국했다가 계획에도 없던 이 작품을 한달간 찍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 원작자, 노희경 작가님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작년에 제가 ‘가화만사성’ 찍을 때 노 작가님의 ‘더어 마이 프렌드’가 방송되고 있어서 그걸 보게 됐어요. 정말 대단한 작가라고 생각했고, 그런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런 작품을 기획하나 싶었고, 기회가 돼서 촬영장에 한번 놀러 갔었어요. 김혜

자 선생님, 나문희 선생님을 뵈고 인사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노 작가님 작품을 하자는 거예요. 어떤 작품인지도 모르고 노 작가님 이름만 듣고 하겠다고 했어요.(웃음)”

1996년 원작에서 나문희가 연기했던 인희와 이번엔 원미경이 연기한 인희는 결이 많이 다르다.

“출연 결정을 한 후 노 작가님을 만나 2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작가님이 그때 본 제 모습을 이번 대본에 많이 반영하셨대요. 실제로 원작 대본과 이번 대본의 인희 캐릭터가 다르더라고요. 제 모습에 맞게 바꿔주신 배려가 너무 고마웠죠.”

원미경은 “복귀작으로 이 작품을 제안받았더라면 못한다고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노 작가님 이름만 듣고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대본을 읽어보니 이 일을 어쩔다 싶더라고요. 너무 너무 힘든 신들이 많아서 과연 내가 14년의 공백을 뛰어넘어서 할 수 있을까, 겁 없이 담뱃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대본은 원미경의 연기 세포를 깨웠다. “작품이 좋으니 대사나 전개가 무리 없이 녹아들어서 막상 촬영하면서는 자연스럽게 몰입할 수 있었어요. 작품이 워낙 좋고, 역지사려한 신이 하나도 없으니 대본에 쓰인 대로만 하면 됐어요.”

한 발 더 나가 ‘욕심’도 생겼다. “20년 후에는 제가 치매 시어머니 역을 하고 싶어요. 김영옥 선생님께서 ‘저도 선생님처럼 예쁘게 나이 들고 싶어요. 20년 후에는 제가 이 역할 할 거예요’라고 했어요.(웃음)”

1978년 미스 롯데 선발대회 1등 출신인 원미경은 ‘사랑과 진실’로 큰 사랑을 받았고, ‘내일이 오면’ ‘아파트’ 등의 작품을 통해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2000년에는 ‘아쭈마’로 다시 한번 이름을 날렸고, 2002년 ‘고백’을 끝으로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갔다.

그의 남편은 MBC 드라마 PD로 ‘애인’ ‘신데렐라’ ‘눈사람’ 등을 히트시킨 이장순 씨. 그러나 돌연 미국으로 떠난 이씨는 올해 목사 안수를 받았다.

“굉장히 바빴어요. 엄마로서 할 일이 많았어요. 이전까지 놓치고 갔던 게 많아서 빈틈을 채우느라 바빴어요. 딸 둘, 아들 하나예요. 빈틈을 다 채웠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엄마로서 산 삶이 배우로서 산 삶보다 더 화려했던 것 같아요. 제 삶을 더 지시할 수도 있었고요. 막내가 대학을 가서 작년에 복귀를 생각하게 됐지요. 지난 6월에는 큰딸이 결혼해서 사위도 봤어요.”

“짱짱”했고 강렬했던 1980~90년대의 스타 원미경은 사라지고, 조용히 흘러가는 맑은 시냇물 같은 온화한 여인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통화 내내 자상했고 따뜻했다.

연합뉴스

‘빅뱅’ 日 돛투어 5년 연속 성료

총 420만 여명 관객 몰이

그룹 빅뱅이 일본에서 해외 아티스트 사상 처음으로 5년 연속 돛 투어를 열어 총 420만명이 넘는 관객 동원 기록을 세웠다.

25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빅뱅은 전날 일본 오사카 교세라돔에서 막을 내린 ‘빅뱅 재팬 돛 투어 2017’〈사진〉을 통해 69만6천000명을 모으며 2013년부터 5년 연속 돛 투어를 통해 총 420만5500여 관객을 모았다.

4개 도시에서 14회 열린 이번 돛 투어의 대미는 교세라돔이었다. 교세라돔은 2013년 11월 23일 빅뱅이 일본에서 첫 돛 공연을 개최한 곳으로 도쿄돔만큼이나 의미 있는 장소다.

지드래곤은 이날 공연에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 그때까지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금방 만날 수 있으니까”라며 “언제나 빅뱅 5명은 여러분들이 행



복해졌으면 한다. 그것이 저희 힘의 원천이다. 저희의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면, 그 날은 금방 올 거로 생각한다. 저희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라고 인사했다.

빅뱅은 이날 ‘판타스틱 베이비’, ‘뱅뱅뱅’ 등의 히트곡을 선보였으며, 양코르 무대에서 무빙 스테이지와 이동차를 타고 객석의 팬들이 LED 팔찌로 연출한 ‘빅뱅 이즈 VIP’란 문구에 감동하기도 했다.

YG는 “당분간 일본에서 이들의 무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에 객석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열광적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주 ‘황금빛 내 인생’ 송년특집 방영

본편 제작시간 지체 돼 결방

제작스토리·출연자 인터뷰 등

시청률 40%를 넘기며 흥행 중인 KBS 2TV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사진〉이 이번 주 결방하고 송년특집으로 대체된다. 제작시간 부족에 따른 처방이다.

KBS는 25일 “오는 30일과 31일 오후 7시 55분에는 ‘황금빛 내 인생’ 본방송 대신 드라마 제작 스토리와 출연자 인터뷰, 다시 보는 명장면 등으로 구성된 송년특집을 방송한다”고 밝혔다.

KBS는 이렇듯 연말을 맞아 송년특집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지만 내부적으로는 뼈대한 제작 환경으로 인해 ‘검사검사’ 한 주간 결방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드라마 역시 그주 방송분을 그주에 찍어 내보내는 뼈대한 일정으로 제작되고 있다.

최근 tvN 수목극 ‘슬기로운 감빵생활’도 제작 시간 부족으로 한 주 결방을 예고했고, 주말극 ‘화유기’는 아예 본 방송 도중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사고’가 나기도 했다.

본방송인 ‘황금빛 내 인생’ 35회와 36회는 내년 1월 6일과 7일 오후 7시 55분에 각각 방송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여라 달순아 40 여유 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KBS대기획 요리 인류 도시의 맛 (재)	50 양코르 특선다큐멘터리 허끝으로 만나는 중국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0 UHD 한식의 마음	50 생생정보 스페셜	4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산 (재)		00 12 MBC 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통조림 55 특목 보험설계 (재)
1	00 KBS네트워크특선 뮤직토크쇼 가요1번지 (재) 50 2018 평창 패럴림픽 특집 평창에서 희망을 쏜다 (재)	10 특선다큐 DIY, 하지 마세요	20 헬로키키 자연교실	55 닥터 365
2	40 2017 KBS광주 어린이합창단 정기공연	00 생활의 발견 (재) 5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15 지오매가 45 위대한 영화의 탄생지	00 뉴스브리핑
3	4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 스페셜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재)	40 헬로키키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4	00 4시 뉴스집중		1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00 세상에서 가장 험한 등굣길 55 닥터 365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방송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재)	00 5 MBC 뉴스 15 양코르 MBC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40 팔도방송 스페셜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영재발굴단
7	00 KBS 뉴스 7 35 특집다큐 행복의 조건, 신뢰	50 네 남자의 비밀	15 전생애 원수들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저글러스(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40 특집다큐 지진과 문화재		05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10	30 KBS 뉴스라인	00 저글러스	00 투깝스	00 의문의 일승
11	00 세계건강기행 20 해외결착드라마 닥터 포스트 시즌2	10 철부지 브로망스 -용미클럽 정주형	10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부
12	10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KBS 국악관현악단 초청연주회	35 KBS대기획 요리 인류 도시의 맛 (재)	05 위대한 영화의 탄생지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안기행 -살의 놀이터, 시애틀)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07:45 출동! 슈퍼캣 08:00 당동맹 유치원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뽕뽕이 09:00 몬카트 09:15 소피 루비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정수의 비밀(재)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버섯 비지찌개와 돼지고기 콩나물찜>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메디컬 다큐-7요일 13:40 성난 물고기(재)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화산섬의 비밀	15:00 우주탐험가 챗 15:15 꼬마기사 마이코 15:30 오도트,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얼마 까투리 16:15 두다다롱 16:30 방귀대장 뽕뽕이(재) 16:45 당동맹 유치원1~2(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방안전 이야기 17:3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4 19:00 몬카트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뉴스 19:55 도시, 학교를 품다! <미래인재의 조건> 20:40 다큐오늘 <미안마의 황금불탑> 20:50 세계테마기행 <불의 신화를 찾아서, 빅아일랜드> 21:30 한국기행 21:50 EBS 다큐프라임 <세상을 바꾼 물고기, 대구> 22:45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23:35 메디컬 다큐-7요일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한국영화특선 <연성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子	48년생 임초투성이의 운해로 진입하고 있다. 60년생 주체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어지러운 형국에 놓인다. 72년생 평상시에 학수고대하며 갑갑해 왔던 것이 곧 해결되겠다. 84년생 디더어 중차대한 것을 이행하게 된다. 행운의 숫자 : 03, 01	午	42년생 불합리함을 배제하고 여건을 조성하자. 54년생 약재가 보이니 조심해야 할 것이다. 66년생 새로운 분야를 접하게 될 것이다. 78년생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90년생 골격 위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9, 39
丑	49년생 공연회 헛수고만 할 공산이 크다. 61년생 예상치 못했던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나머지 인간관계 속에서 허덕인다. 73년생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어 가는 양태이다. 85년생 목격하는 바는 보이지 않고 불연함만 나타난다. 행운의 숫자 : 31, 09	未	43년생 천우신조써 대길하게 된다. 55년생 흐름에 따르는 것이 유익하다. 67년생 배정까지 살펴보고 판단하라. 79년생 물심 양면으로 심혈을 기울여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91년생 불련함을 감수해야 하는 국면에 놓여있다. 행운의 숫자 : 02, 96
寅	50년생 갑작 놀랄 정도로 좋은 일이 생기겠다. 62년생 안도의 한숨은 돌리지만 마음은 불편하게 되어 있다. 74년생 길사의 성립 조건들을 마련해 나가는 정황이 역력하다. 86년생 적응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10, 21	申	44년생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일 것이니 먼저 상대의 저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56년생 겉모습만 보아도 대중 집착이 갈 것이다. 68년생 주권이 필요하도다. 80년생 능력에 맞는 계획과 방안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52, 59
卯	51년생 험든 만큼에 비례한 효과가 확실하 나타날 것이다. 63년생 분위기나 겉모습에 현혹된다면 큰 코 다칠 수 도 있다. 75년생 생 잔폭 기대해 왔던 바와는 달리 도움이 안 된다. 87년생 배려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행운의 숫자 : 82, 62	酉	45년생 한정하지 않는다면 통제하기 힘든 형제이니라. 57년생 명분에 이끌리다보면 실속이 없어지는 법이다. 69년생 내리막길 이기는 하지만 미끄러우니 세심하게 주의하자. 81년생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59, 60
辰	52년생 동기 부여가 절실한 마당이다. 64년생 하상일 뿐이니 빨리 포기할수록 손해를 줄일 수 있다. 76년생 임시방편적이라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느니라. 88년생 필수 불가결할 일 때문에 하루 종일 일매에서 애를 쓰게 된다. 행운의 숫자 : 40, 34	戌	46년생 함께한다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 58년생 방법과 기교에 따라서 전연 달라질 수도 있다. 70년생 재수가 있는 날이니 길방과 아이들을 선택하여 기회를 잡아 보자. 82년생 벌여 놓은 것 못지않게 끝까지 행기는 것도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26, 42
巳	53년생 행보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라. 65년생 가만히만 있으면 될 일인데 굶어서 부스럼을 내지 말자. 77년생 복잡다단한 판세가 계속 될 것이니 종합적인 고찰이 절실히 요청된다. 89년생 굶이 있는 인식의 계기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7, 85	亥	47년생 조처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복잡다단하도다. 59년생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작용하고 있느니라. 71년생 오랜 세월 동안 성가서 왔던 문제가 해결되는 성국이니라. 83년생 오래갈 인연이 아니니 마음을 비우고 대하라. 행운의 숫자 : 15, 4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형” ☎010-9790-8237			